

# 15세기 朝鮮人이 본 明 ‘弘治中興’의 兆朕\*

— 弘治 元年(1488)의 崔溥『漂海錄』을 中心으로 —

박 원 호\*\*

## < 목 차 >

1. 머리말
2. 15世紀 明 ‘弘治中興’에 대한 視角
3. 朝鮮朝廷이 포착한 ‘弘治新政’의 事例
4. 조사과정에서 崔溥가 느낀 ‘新政’ 機微
5. 송환과정에서 崔溥가 들은 ‘新政’ 情報
6. 맺음말

## 1. 머리말

明朝의 제8대 황제로 보통 弘治帝로 불리는 明孝宗의 재위 기간은 18년으로, 이 시기는 明代史에서 ‘弘治中興’ 또는 ‘弘治新政’이란 말로 곧잘 요약된다. 荒淫으로 얼룩진 생애를 보낸 父皇 明憲宗<sup>1)</sup>이 사망하고 明孝宗이 즉위한 해는 成化 23년(조선성종 18년, 1487) 8월이다. 명효종이 즉위하자마자 전광석화와 같이 시도한 과감한 숙청은 북경을 왕래하는 조선의 조공사절에게도 즉각 포착되었다. 당시 재위 19년째이었던 朝鮮成宗은 이와 같은 明朝의 동향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북경과

\* 이 논문은 2004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高麗大 史學科 教授

1) 明憲宗은 늘기 좋아하고 진귀한 물건이나 탐하며 道敎를 맹신한 인물로 政事를 매우 태만히 하였으므로, ‘土木의 變’ 이후 한 때 위축 될 듯하던 宦官政治의 길을 다시 크게 열어 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明憲宗의 成化年間은 ‘汪太監이 있음을 알뿐, 天子가 있음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汪直이라는 한 宦官이 專權을 한 시기로 알려진다. 暴鴻昌은 이 시기를 “조정은 황폐하고 환관과 간신이 어지럽히고 날뛰며, 토지검병은 더욱 심해지고 사치풍조가 크게 일어나며 國庫는 텅 비어 명초 이래 백여 년간의 축적이 모조리 탕진되었고, 災變마저 빈발하여 사회모순이 격화되기 시작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許大齡 王天有 主編, 『明朝十六帝』, 紫禁城出版社, 1991, 173쪽.

한양을 왕래하는 朝鮮使臣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弘治新政'의 초기의 전개과정은 물론, 몇 년이 지난 이후, 개혁의 박력이 쇠퇴해가는 미세한 변화까지 조선조정에 포착되어 『朝鮮王朝實錄』에 빠짐없이 수록되었다.

그런데 成化 23년에 濟州에 敬差官으로 파견되었던 崔溥가 표류로 말미암아 浙江省에 漂着하여 중국 땅에 상륙한 때는 명효종의 즉위 이듬해인 弘治 원년(조선 성종 19년, 1488) 윤정월 16일이다. 이후 최부는 절강에서 북경으로 호송되고 다시 요동을 거쳐, 6월 4일에 압록강을 건너기까지 모두 136일 간 중국에 체류하게 되었다. 최부가 중국 땅에 머물렀던 이 기간은 바로 홍치 원년, 즉 명효종이 즉위 첫 해의 6개월째부터 10개월째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명효종이 취한 여러 개혁조치로 말미암아 생성된 사회 분위기는 비록 표류민의 처지였지만 최부에게 예리하게 감지되었다. 최부는 『漂海錄』의 여러 곳에서 '新政'이 표출되고 있는 양상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明代中期 이른바 '弘治中興'이 시작되는 조짐을 동시대의 조선인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던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한 자료는 물론 『朝鮮王朝實錄』을 기본 史料로서 활용하지만, 특히 최부 『표해록』을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15세기에 조선이 明朝의 정치개혁을 어느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가 하는 문제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明과 朝鮮의 關係史에는 아직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최부 『표해록』과 『朝鮮成宗實錄』을 결합시켜 15세기에 조선인이 본 明의 '弘治中興'을 그려냄으로써, 그와 같은 연구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2. 15世紀 明 '弘治中興'에 대한 視角

『明史』 「本紀」에서 史臣은 明孝宗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바가 있다.

明은 천하를 얻고 나서 16세를 전해 왔는데, 太祖와 成祖 이외에 기릴만한 사람은 仁宗·宣宗·孝宗뿐이다. 仁宗·宣宗의 시기에는 國勢가 처음 커져가며 紀綱이 바로 잡혔고 풍속이 순박하였다. 成化 이후 태평무사하다고 하며 安樂하게 되면 나태에 빠지고 富盛하게 되면 사치를 열었다. 孝宗만이 홀로 儉約하고 절제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이룩된 번영을 지키기 위해 애썼으며, 사람을 쓰고 부리는 조정의 질서가 맑고 밝았으며, 백성들은 안락하고 물자는 풍족하였다. 『周易』에 “평평하기만 하고 비탈지 않는 땅은 없으며,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으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참고 견뎌야 허물이 없다”<sup>2)</sup>고 하였는데, 이 도리를 안 사람은 오직 효종뿐이로다!<sup>3)</sup>

『明史』 「列傳」 何喬新 등 傳의 贊에서도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孝宗은 슬기롭고 어진 군주가 된 데는 까닭이 있다. 검약하고 스스로 근신하며 사람을 골라 일을 맡기는데 밝았던 것이다. 劉(健) 謝(遷)과 같은 현명한 이들이 정부에 있었고, 王恕·何喬新·彭韶 등이 七卿이 되어 늘 서로 도우며 보필하였다. 조정에는 君子가 많아 거의 (唐의) 開元年間이나 (宋의) 慶曆年間의 盛時에 비길 만하였다. 何喬新과 彭韶는 그 쓰임을 다 하지 못하였으나 朝野에서 人望이 자자하였다. 史書에서는 宋仁宗 때 나라에 變幸이 없지는 않았으나 治世의 大體에 누를 끼칠 정도는 아니었고, 조정에 小人이 없지는 않았지만 착한 사람들의 기운을 누르지 못하였으니, 孝宗 초기의 정치가 대략 이와 비슷하였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憲宗의 딸기를 이어 받아 정치를 옆에서 간여하지 못 하게 하고 재정에 낭비를 없애며, 나라의 원기를 북돋아 나라 안팎이 평온하였다고 어찌 쉽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sup>4)</sup>

清代의 역사가 谷應泰는 『明史記事本末』에서 明孝宗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明은 천하를 얻고 16세를 전하게 되었는데, 太祖와 成祖 이외에 기릴만한 황제는 仁宗·宣宗·孝宗뿐이다. 仁宗·宣宗의 시기는 國勢가 처음 커져갔으므로 紀綱이 바로잡히고 순박함이 남아 있었다. 成化 이래 태평무사라고 칭해졌지만, 安樂함이 쉽게 나태와 安逸에 빠지게 하고, 富盛함이 점차 교만과 사치를 부르게 되었다. 孝宗만이 홀로 삼가 節儉하고, 政事에 부지런하고 백성을 사랑하였으며, 안정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 진력하여, 이를 통하여 조정의 관원이 청렴하였고, 백성들은 안락하고 만물은 풍족하였다. 『周易』에 “평평하기만 하고 비탈지 않는 땅은 없으며,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

2) 『周易』 卷2, 泰.

3) 『明史』 本紀 卷15, 孝宗.

4) 『明史』 「列傳」 卷183, 何喬新 등 傳의 贊.

은 없으니,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허물이 없다”<sup>5)</sup>고 하였는데,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오직 효종뿐이로다!

『明通鑑』을 지은 清代의 夏燮도 명효종에 대해 『明史』의 기사를 인용한 다음, “仁宗과 宣宗 이후 이 이가 바로 中興의 主라고 할 수 있다”<sup>6)</sup>라는 평가를 내린 바가 있다. 역시 清代의 鄭澐는 『皇明通紀述遺』에서 명효종을 다음과 같은 인물로 묘사하였다.

황제는 어질고 검소하며, 조심스럽고 英明하며, 마음이 맑고 욕심은 적었으며, 백성을 사랑하고 財貨를 아꼈으며, 方士나 宦官이 감히 간여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災難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患難을 슬프게 생각하였다. 도적을 잡아내고 오랑캐를 막으며, 덕이 있는 사람을 높이고 공로가 있는 사람에 보답하며, 쇠퇴를 막아 흥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노력하기를 始終 변함이 없었으니, 그 또한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결과이다.<sup>7)</sup>

그런데 명효종에 대해 각종 史書의 이러한 讚辭와는 별도로 정작 明代史學界에서는 明孝宗의 역사적 位相을 놓고, 반드시 일치된 시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郭厚安은 『弘治皇帝大傳』에서 弘治年間은 개혁이 실행된 시간도 짧았고 폭도 크지 않았으므로, 소위 ‘弘治中興’의 빛은 매우 빠르게 사라져버렸고 이후 사회 전체가 고통의 신음 속에 비틀거렸다고 보았다. 즉 당시 상황은 國勢가 계속 쇠퇴해 가는데 그 진행이 완만하여 표면적으로는 升平의 모습을 유지하는 듯했으나, 실제로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잠복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明孝宗은 聖君도 아니고 暴君도 아닌 평범한 인물로서, 현상유지를 추구한 ‘太平天子’로 郭厚安은 묘사하였다.<sup>8)</sup>

또한 ‘弘治新政’의 시기에 과연 明朝 政治의 병폐인 宦官의 정치 간여가 과연 사라졌는가에 대한 異見도 있다. 즉 明孝宗은 忠直과 廉潔의 기준으로 환관을 등용

5) 『周易』 卷2, 泰.

6) 『明通鑑』 卷40, 孝宗.

7) 『皇明通紀述遺』 卷8, 孝宗敬皇帝.

8) 郭厚安, 『弘治皇帝大傳』, 遼寧教育出版社, 1994.

하며 환관의 단속을 엄하게 하였을 뿐, 정치 간여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아니었다. 따라서 明孝宗 시기에 환관의 권세가 조금 줄어들긴 하였으나 政治 간여는 멈추어지지 않았으며, 활동의 범위는 采辦·監工·督軍·鎮守·審獄 등에 걸쳐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sup>9)</sup>

明太祖와 더불어 成祖도 創業의 군주라고 본다면, 仁宗·宣宗·孝宗은 守成의 군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仁宗·宣宗이 국세가 일취월장하던 太祖·成祖 시대의 뒤를 잇고 있는 데 비해, 孝宗은 '土木의 變'으로 국세가 크게 꺾인 英宗과 사회경제적 모순이 한층 깊어진 憲宗 시대의 뒤를 이었다. 그러므로 孝宗의 치적을 仁宗·宣宗과 동일 선상에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다. 孝宗의 업적을 政治史的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가 처해 있던 시대를 출발점으로 하여, 그가 추진했던 정책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해야만 할 것이다.

명효종은 즉위와 더불어 人事의 一新을 통한 政治改革에 발동을 걸었다. 먼저 명효종에 의해 사악한 환관들로 알려진 梁芳·王敬·韋眷 등이 축출되고, 成化年間に 갖가지 부정부패를 저지르던 李孜省은 下獄되어 獄死하였다. 그리고 明憲宗이 관직을 부여하였던 禪師·國師·真人·法王·囉嘛 등 佛僧과 方士들 무려 1천여 명을 숙청하였다. 물론 명헌종을 荒淫의 길로 인도하였던 內閣大學士 萬安이 축출된 것은 당연하였다. 반면에 비교적 능력 있고 정직한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니, "조정에는 君子가 많아 거의 唐의 開元年間이나 宋의 慶曆年間の 盛時에 비길 만하였다"<sup>10)</sup>고 할 정도의 국면이 형성되어 王恕·柳大夏·徐溥·謝遷·劉健·李東陽·馬文升 등 수많은 名臣이 배출되었다.

사실 전반적으로 볼 때 明孝宗은 즉위 후 宦官을 단속하고, 內閣을 존중하며, 言路를 넓히고, 官吏考察制度를 완비하는 등 개혁정치에 힘쓴 것은 사실이다. 경제적으로는 均徭法의 전국적 시행을 통해 雜役收取制度의 폐단을 개혁하였고, 賦稅 減免이나 災民 賑恤 뿐 아니라 流民 문제에도 주의하며, 스스로도 節儉하는 생활을 하려고 애썼다. 군사적으로는 붕괴되는 衛所制에 대응하여 民壯法을 시행하며 武學法도 舊도에 올려놓았다. 법률적으로는 『問刑條例』와

9) 張宏斌, 「論弘治時的皇權與內官干政」, 渭南師專學報(社會科學版), 1999年 第3期.

10) 『明史』 「列傳」 卷183, 何喬贊新等傳贊.

『大明會典』의 편찬을 통해 刑律과 制度를 정비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개혁에 발맞추어 弘治年間에는 문화적으로 ‘前七子’를 중심으로 명대 문학의 ‘復古運動’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였다.<sup>11)</sup>

### 3. 朝鮮朝廷이 포착한 ‘弘治新政’ 事例

흔히 弘治帝로 불리는 明孝宗이 황제로 등극하였다고 조선에 알려진 것은 성종 18년(성화 13년, 1487) 9월 27일이다. 한양을 떠난 聖節使 韓儼이 遼東에 이르러 “지난 8월 22일에 황제가 승하하고 태자가 즉위하였으므로, 요동 사람들이 다 白笠을 썼습니다. 또 듣건대, 새 황제는 法令이 嚴明하다 하니, 臣이 가져온 別進獻은 바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급보를 알려 왔다.<sup>12)</sup> 이는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明憲宗의 死去로 황태자가 새 황제로 즉위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新皇帝 明孝宗이 ‘法令嚴明’의 施政 방침을 펴고 있다는 것을 조선조정에게 보고한 첫 정보였다.

중국과 책봉조공관계를 맺고 있는 조선은 10월에 明憲宗의 昇遐를 哀悼하기 위한 進香使로 戶曹判書 李封과 陳慰使로 同知中樞府事 卞宗仁을 북경에 파견하였다.<sup>13)</sup> 이와 거의 동시에 明孝宗의 즉위를 賀禮하기 위한 賀登極使로 右議政 盧思愼과 武靈君 柳子光을 같은 달 또 다시 북경에 보냈다.<sup>14)</sup> 賀登極使 盧思愼은 遼東에 도착하였을 때, 알게 된 新皇帝에 관한 정보를 12월 3일에 성종에게 급히 알려 왔다.

11) 李夢芝, 「論弘治帝의 歷史地位」, 『史學月刊』 1997-2.

12) 『朝鮮成宗實錄』 18年 9月 癸亥. 聖節使 韓儼은 10월에 북경에 도착하여 入朝하였다는 기록이 『明實錄』에 있다. 『明孝宗實錄』 卷5, 成化 23年 10月 乙酉.

13) 『朝鮮成宗實錄』 18年 10月 丙子. 『明孝宗實錄』 卷7, 成化 23年 11月 甲子.

14) 『朝鮮成宗實錄』 18年 10月 壬午. 『明孝宗實錄』 卷8, 成化 23年 12月 甲申.

새 황제의 政습이 매우 嚴峻하여, 늙은 宦官으로 不法을 저지른 자 7.8명을 南京에 옮기도록 하고 家産을 籍沒했다고 합니다.<sup>15)</sup>

그런데 하등극사 노사신에 앞서 명헌종의 탄일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聖節使 韓僎도 귀국하기 이전에 성종에게 다음과 같이 馳啓하였다.

太監 谷淸이 家人 李懈를 보내 臣에게 말하기를, “전에 雲南 사람이 先皇帝에게 玉을 바치고 이로 인하여 銀 약간 兩을 하사 받았었는데, 지금의 황제가 즉위하자 그 사람을 가두고 鞠問하게 하기를, ‘너는 어째서 노리개 같은 물건을 외람되게 先帝께 바치고서 御用監의 銀을 많이 얻었는가?’ 하였으니, 보물이나 노리개를 좋아하지 않음이 이와 같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別獻 물건은 朝廷에서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先皇帝께서 저로 하여금 그 出入을 맡게 하였었는데 이제 이미 崩逝하셨고, 저 역시 장차 陵所에 가려고 이미 陛辭하였으므로 奉進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도로 가지고 가십시오. 다만 銀과 象牙는 先帝께서 欽賜하신 것이어서 마음대로 버려둘 수 없으니, 다음 행차에 별도 單本을 써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太監이 陵所에 간다면 장차 누구를 통해 奉進해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sup>16)</sup>

성절사 한찬은 명효종이 즉위한 다음 別獻 품목을 바치는 일과 관련해서 변화된 중국 조정의 분위기를 성종에게 급히 보고하였다. 보고 속에서 이 사무를 관장해 오던 太監 谷淸이 “장차 陵所에 가려고 陛辭하였다”는 것은 나중에 聖節使 蔡壽의 보고 가운데 “前代의 늙은 宦官들은 모조리 先皇의 陵 곁으로 옮겨가게 하고, 조정의 모든 사무는 모두 어진 사대부에게 맡겼습니다”라는 내용과 상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17)</sup> 12월 14일의 經筵에서 講을 마친 大司憲 權健이 성종에게 “또 들건대, 새 天子는 法습이 嚴明하다고 하니, 이제 進賀使 등은 선택하여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sup>18)</sup>라고 진언하며, 山海關에서 進香使 李封을 만나고 나서야 뒤늦게 이와 같은 정보를 馳啓한 韓僎을 聲討하기도 하였다. 이듬해 윤정월에 귀환한 진향사 이봉에게 성종이 “새 황제의 정치는 어떠하던가?”라고 물은 데 대해,

15) 『朝鮮成宗實錄』 18年 12月 戊辰.

16) 『朝鮮成宗實錄』 18年 12月 戊辰.

17) 『朝鮮成宗實錄』 19年 8月 乙卯.

18) 『朝鮮成宗實錄』 18年 12月 己卯.

이봉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정치가 嚴明하고 내외가 淸肅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글을 올려 萬氏의 族親을 誅殺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으며, 또 현 執政 大臣의 과실을 지적하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 萬氏는 大行皇帝의 사랑을 받았는데, 晩年에 姿色이 쇠하여 총애가 식어지자 몰래 먼 지방의 미녀를 취해 바침으로써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총애를 굳히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새 황제가 東宮에 있을 때 또 총애를 얻기 위해 늙은 앵무새 한 쌍을 길러 '황태자는 천만세를 누리소서'라고 말하도록 훈련시켜 태자에게 보냈는데, 태자가 그 앵무새의 말을 듣고는 노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妖物이다.'라고 하며 곧 그 목을 자르려고 하였다 합니다. 萬氏가 그 말을 전해 듣고 총애를 얻으려다가 도리어 노여움을 산 것을 알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상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19)

한편 하등극사 노사신과 부사 유자광도 홍치 원년 1월에 귀환하였는데, 이번 사행을 한마디로 “조정이 安靜되고 백성은 생활이 나아지며 황제가 嚴明하니, 모든 신하가 공경하고 두려워합니다. 신이 전에 書狀官으로 북경에 갔을 적에는 關 밖에 民家가 적었지만, 지금은 閭井이 조밀합니다”라고 성종에게 느낀 점을 보고하였다. 그리고는 성종과 노사신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문답이 이루어졌다.

임금이 말하기를, “듣건대, 황제가 宦官과 萬氏의 族親을 많이 죄를 주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죄주기를 청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였는가?” 하니, 노사신이 아뢰기를, “듣건대, 어떤 사람이 상소하였기 때문에 죄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신 등이 떠나 돌아 올 때에도 萬氏의 族親이란 자가 죄로써 獄에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듣건대, 황제의 법령이 嚴明하다고 하는데 정말인가?” 하니, 노사신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황제가 東宮에 있을 때 항상 말하기를, ‘중은 도대체 무엇 하는 사람이나?’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太子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 중은 반드시 뜻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중과 道士로 벼슬에 제수되었던 자는 과연 모두 파직되었습니다. 先皇帝는 사람을 쓰는 데 있어 사사로운 뜻으로 한 것이 간혹 있었으나, 지금 황제는 銓注와 黜用을 하나같이 정당하게 하고 또 성품이 보물이나 노리게 같은 물건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바람 불고 눈이 올 때라도 朝會를 폐하지 아니하며, 여러 신하를 대하는 데에는 모두 喪服으로 임하고 오직 하늘을 제사하는 데에만 黃袍를 씁니다. 신 등의 慰寔을 베풀 때에도 음악을 연주하지 아니

19) 『朝鮮成宗實錄』 19年 閏正月 戊子.



하고 雜戲를 베풀지 아니하며 勸花를 床 위에 놓고 꽃지 아니하였으니, 대저 선황제의 弊政을 일체 更張하였습나다.<sup>20)</sup>

조선의 君臣 간에 이루어진 이 문답의 내용은 '弘治新政'으로 불리는 개혁적 정치의 알맹이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 문답 속에서 하등극사 노사신이 파악한 明 孝宗의 개혁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專橫을 일삼던 萬貴妃 일족을 숙청하였다.
2. 法令을 엄격히 적용한다.
3. 僧侶와 道士로 官職을 받았던 사람을 모두 罷職시켰다.
4. 銓注를 통해 人事를 공정하게 한다.
5. 朝會를 폐하지 아니한다.
6. 寶物이나 노리개를 탐하지 않고 節儉을 숭상한다.

이는 모두 명헌종의 재위시절에 만연했던 弊政을 혁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으며, 명효종이 즉위 초기에 펼친 이른바 '新政'의 구체적 양상을 조선은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21)</sup>

그런데 최부가 濟州三邑推刷敬差官의 임무를 부여 받아 대궐을 하직한 것이 성화 23년(1487) 9월 17일이고, 전라도 海南縣 館頭梁에서 제주로 떠나는 배를 탄 것이 11월 11일이다. 그런데 하등극사 노사신이 명효종의 개혁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올린 홍치 원년 1월 18일은 최부가 이미 성종의 명을 받고 推刷敬差官으로 제주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최부는 바로 이 달 30일에 부친상을 연락받고 다음 달 3일에 배를 타고 떠났다가, 폭풍우 때문에 배가 표류하여 13일 후에 중국 浙江省 臺州府 臨海縣에 상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부는 시간적으로 명효종의 즉위 사실 정도만 겨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주도로 출장을 갔고, 이듬해 윤정월

20) 『朝鮮成宗實錄』 19年 閏正月 癸巳.

21) 明孝宗은 明憲宗과는 달리 珍貴한 물건을 전혀 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선 기록에도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다. 弘治 6년 聖節使 李誼가 보고한 내용에 "중국 조정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成化帝 때는 탄일에 珊瑚를 바쳤는데, 지금 황제는 받지를 않았다. 또 麩子가 바친 眞珠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라는 기사가 『朝鮮成宗實錄』 24年 8月 庚寅條에 있다. 弘治 15년 正朝使 李秉正의 보고에도 "황제가 珠玉을 보배로 여기지 않으므로 궁중 府庫에 주옥이 텅 비었으며, 이 때문에 시중에서도 또한 주옥을 매매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는 구절도 『燕山君日記』 8年 3月 丙申條에 나온다.

3일 제주를 떠나면서 표류하게 되었으므로, 명효종의 '新政'에 대한 정보를 事前에 전혀 認知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최부의 일행 43명이 무사히 조선에 귀환한 홍치 원년 6월 이후에도 조선성종은 명의 조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홍치 2년 3월 正朝使로 북경에 다녀 온 辛鑄에게 성종이 중국 조정에 무슨 일이 있던가를 물었을 때, 신주는 “황제는 嚴明하며, 臣僚는 恪勤하여 특별히 말씀드릴 일이 없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홍치 5년 3월에 북경에 다녀 온 正朝使 金自貞은 성종이 “중국은 태평하던가?”라는 물음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였다.

태평하였습니다. 다만 들으니, 황제가 편치 못하다고 하던데, 朝會 때에 바라보니 天顏이 매우 수척하였습니다. 황제가 처음 즉위하였을 적에는 모두 明斷이 있었다고 하였었는데, 지금은 紀綱이 엄하지 않고 날씨도 고르지 못하여 해마다 풍년되지 않아 백성들이 매우 곤궁하다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조회할 적에는 朝臣들이 각자 位階대로 줄을 서서 감히 사사로운 말을 못하였는데, 지금은 혹 모여 서서 사사로운 말들을 하니, 이로써 기강이 엄하지 못함을 알았습니다.<sup>22)</sup>

위의 記事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명효종 즉위 초기에 서릿발같았던 紀綱이 3년 가량이 지난 이 무렵에는 벌써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으며, 또 그러한 현상이 朝鮮使臣에게도 쉽게 感知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新政'을 추진하는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始點에 관한 明 측의 모호한 기록에 비해, 조선 측의 기록에는 이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는 명효종이 政事에 나태해지는 始點을 홍치 8년경으로 보고 있으나,<sup>23)</sup> 『조선왕조실록』의 이 기사는 3년 전인 홍치 5년경에 명효종이 이미 '明斷'을 잃기 시작하였고, 조정의 기강이 전과 달리 흐트러지고 있음을 지적

22) 『朝鮮成宗實錄』 23年 3月 庚辰.

23) 傅衣凌 主編, 楊國楨 陳支平 著, 『明史新編』, 人民出版社, 1993, 152쪽. 이 책의 저자는 명효종이 正統 이래의 정치적 積弊를 바로잡는데 철저하지 못하였고 많은 近侍들 이를테면 李廣 같은 사람이 여전히 중용되었으며, 홍치 8년(1495) 이후 명효종은 齋醮 煉丹에 열중하고 朝會에 늦으며 章奏의 批答도 제 때에 하지 않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한 것이다.

한편 明孝宗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 같다는 보고를 들은 성종은 즉각 최근에 북경을 다녀 온 적이 있는 재상들에게 이 점을 물었더니, 柳子光·朴崇質·蔡壽·李璘이 대궐에 들어와서 “황제는 원래 마른 편으로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해 주었다.<sup>24)</sup> 홍치 5년 명효종은 황태자를 책봉하고 나서 兵部郎中 艾璞<sup>25)</sup>을 조선에 파견하여 책봉 내용을 담은 詔書와 勅書를 반포하였다. 明使 애박은 성종조차도 “중국 사신을 상대한 것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었으나, 이렇게 경거망동하는 자는 내가 본 일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使行 이후 조선에서 ‘조급하고 천박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인물이다.<sup>26)</sup> 바로 그 애박이 평양에 이르렀을 때 宣慰宴 자리에서 通事에게 말하기를, ‘崔溥는 잘 있는가?’하고 물어 通事가 ‘이번에 進賀使를 따라 赴京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니, ‘지난번 漂流하여 왔을 적에 護送한 모두 일은 모두 내가 한 것인데, 어찌하여 나를 만나보지 않고 갔는가?’ 하고 거들먹거렸다.<sup>27)</sup>

그리고 한양에서 文廟 등을 돌아보고 나서 성종이 배푼 錢送宴 자리에서도 또 애박은 “崔溥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南方에 있을 적에 최부가 40여 명과 함께 표류하여 海岸에 이른 것을, 내가 조정에 아뢰어 盤纏과 脚力을 주어 本國으로 송환하게 하였습니다. 또 東八站 鳳凰山에 堡壘를 설치한 것도 내가 아뢴 것인데, 그로부터 朝貢하러 왕래하는 자가 다른 근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왕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하고 자기의 공적을 성종에게 과시하였다.<sup>28)</sup> 아마도 애박이 浙江省 杭州에 근무하고 있을 때였다고 짐작이 가지만, 정작 최부는 『표해록』에서 艾璞이란 인물에 대해 전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때로부터 다시 2년이 지난 홍치 7년에 북경을 다녀 온 聖節使 河淑溥는 성종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24) 『朝鮮成宗實錄』 23年 3月 庚辰, 10月 癸亥. 같은 해 10월에도 謝恩副使 李季南에게 황제의 起居를 물어 ‘康寧하시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25) 『明史』 列傳 卷200, 伍文定. 『明史』에는 ‘艾璞’으로 기록되어 있다.

26) 『朝鮮成宗實錄』 23年 5月 丁酉, 6月 甲子.

27) 『朝鮮成宗實錄』 23年 5月 甲子.

28) 『朝鮮成宗實錄』 23年 5月 戊戌.

臣도 또한 황제에게 병이 있다고 들었으며, 또 龐顔을 보니 윤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침 늦게 일어나 정사를 보았는데, 혹 아침 해가 3, 4장대의 높이까지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聖節의 賀日에도 조정의 반열에 차례가 없었으며, 儒生이 혹 士大夫의 반열을 지나 贊唱하기도 하고, 혹 절을 하지 않는 이가 있기도 하여 우리나라 사람이 발로 쿡 차며 절하도록 한 후에 절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황제가 后妃의 戚黨을 특별히 대우하여 內藏한 珍寶를 많이 꺼내 한 달에 3, 4 차례나 준다”고 하였습니다.<sup>29)</sup>

위의 기사를 통해 政事에 임하는 명효종의 자세가 즉위 초기에 비해 크게 흐트러졌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4. 조사과정에서 崔溥가 느낀 ‘新政’ 機微

제주를 떠난 최부 일행이 폭풍우를 만나 9일 간의 표류 끝에 먼저 표착한 곳은 浙江 寧波府에 속한 ‘下山’이라는 작은 섬이었다.<sup>30)</sup> 그러나 이곳에서 최부 일행은 海賊을 만나, 얼마 남아 있지 않은 衣糧마저 빼앗긴 채 다시 바다로 내 쫓겼다. 최부 일행이 탄 배는 3일 간을 더 표류하다가 마침내 浙江 臺州府 臨海縣의 牛頭外洋에 이르게 되었다. ‘牛頭外洋’이란 牛頭山<sup>31)</sup> 섬과 서남쪽 육지 사이의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서 최부 일행은 6척의 배에 나누어 탄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다. 최부의 일행이 牛頭山 앞바다에서 만난 이들은 최부가 朝鮮의 朝臣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배에 다투어 들어와, 눈에 보이는 것은 비록 보잘것없는 물건일지라도 모두 강탈하는 지경이었다.<sup>32)</sup> 생명의 위

29) 『朝鮮成宗實錄』 25년 9월 更子.

30) 三門縣의 地方志辦公室 金賢德 副主編이 ‘下山’은 행정구역으로 浙江省 舟山市에 속해 있는 舟山列島의 ‘岱山’섬이라는 사실을 최근 확인하였다. ‘岱山’섬의 위치는 舟山列島 중에 가장 큰 섬인 舟山島의 바로 북측이다. 『연합뉴스』 2004년 2월 9일자.

31) 嘉靖『浙江通志』 卷11, 地理志 第1之11. “臨海山, 在縣東北二百四十里, 瀕于海, 舊名牛頭山”

32) 『漂海錄』 卷1, 閏正月 17日.

협을 느끼게 된 일행은 몰래 상륙하여 가까운 마을로 들어갔으나,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倭寇로 誤認되어 내몰리는 신세가 된 상황을 최부는 이렇게 묘사하였다.

臣은 그 말에 따라 從者들을 거느리고 길을 떠나니, 마을 사람들이 봉둥이와 칼을 집어 들고 징과 북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앞길에서 그 징과 북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소란스럽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사방에서 밀려들어 차례로 교대하며 호송하였습니다. 앞마을에서도 뒷마을에서도 다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50여 리를 지나니 밤이 벌써 깊었습니다.<sup>33)</sup>

이튿날 새벽녘에 仙巖里를 지나 蒲峯里에 이르자, 비로소 海門衛<sup>34)</sup> 千戶 許淸이란 관원과 만나게 되었다. 塘頭寨를 지키던 千戶 許淸은 왜적이 침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軍吏를 거느리고 달려왔던 것이다. 千戶 許淸이 최부에게 말한 첫 마디가 “우리 大唐의 法度는 엄격하니, 너희 만 지방 사람들은 이곳에 오래 머물러 양민들을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되오”라는 것이었다.<sup>35)</sup> 이때부터 千戶 許淸이 최부 일행을 몰아가게 되는데, 밤중에 비를 맞으며 내몰림을 당하던 최부 일행은 횃불을 든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 온 또 다른 한 관인을 만나게 된다. 이 관인은 桃渚所<sup>36)</sup> 千戶 陳華로서, 역시 倭人이 국경을 침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온 것이었다. 두 千戶의 인솔 아래 최부 일행은 도저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 성곽에 이르기 전 7,8리 앞에서부터 군졸들이 갑옷을 입고 창을 세웠으며, 총통과 방패가 거리를 꽂 매운 상태였다. 도저소에 도착한 다음에야 최부는 자신들이 倭寇로 誤認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름을 알 수 없었던 이가 필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 주었기 때문이었다.

예로부터 倭賊이 여러 번 우리의 변경을 침탈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備倭都指揮와 備倭把總官을 두어 왜적을 방지하게 했소. 만약 왜적을 잡는다면 모두 먼저 목을 베고 나중에 보고하게 되어 있소. 이번에 당신이 처음 배를 맨 곳은 獅子寨의 관할지인

33) 『漂海錄』, 卷1, 閏正月 17日.

34) 『籌海圖編』, 卷5, 『浙江兵防官考』, 沿海衛所.

35) 『漂海錄』, 卷1, 閏正月 18日.

36) 『籌海圖編』, 卷5, 『浙江兵防官考』, 沿海衛所. 海門衛의 산하에 新河所 海門前所 健跳所 桃渚所가 편제되어 있다.

데, 寨를 지키는 관원은 당신을 왜적이라 무고하여 목을 베어 바치고 功을 세우려 했소. 그러므로 먼저 “왜선 14척이 변경을 침범하여 약탈하였다”고 보고했던 것이요.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당신을 잡아 목베려는 참에 당신들이 먼저 배를 버리고 사람이 많은 마을로 들어갔던 까닭에 그들은 죄를 부리지 못했던 것이요. 내일은 把總官이 와서 당신들을 심문할 것이요. 당신은 자세히 해명하시오.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말이 있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sup>37)</sup>

최부 일행은 폭풍우와 死鬪를 벌이며 飢渴에 허덕이던 13일간의 표류도 힘들었지만, 상륙하자마자 이들 동안 겪었던 고난도 정말 견디기 어려웠는데, 이는 왜구로 조작되거나 오인되었기 때문이었다. 최부 일행이 두 번째로 표착하였던 牛頭山 앞바다에서 만난 6척의 배에 나누어 탄 무리들은 곧 獅子寨<sup>38)</sup>를 지키는 軍兵들이었다. 獅子寨의 守寨官은 최부 일행이 왜구가 아니라는 것을 뻔히 짐작하면서도 일단 왜선 14척이 해상에 출현하였다고 허위보고를 먼저 해놓고, 소탕명령이 떨어지면 최부 일행을 몰살시켜 증거를 없애버리고 나서 이들을 왜구로 조작할 참이었던 것이다. 만일 최부 일행이 서둘러 상륙하여 마을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들에게 죽음을 당한 후 倭寇로 조작되어 처리될 뻔하였다는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중국인이 주체인 이른바 ‘後期倭寇’나, 왜구를 소탕할 임무를 지닌 沿海 지방 衛所의 軍兵이나 행동양식에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는 명대중기 이후 衛所制度가 軍事警察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여증이 될 수가 있다.

도저소로 끌려간 최부 일행이 把總官 劉澤의 심문을 받을 때, 최부가 사실대로 작성한 공술서를 읽은 과총관은 下山에서 해적을 만난 일과 仙巖里에서 구타당한 일 등 몇 대목을 삭제하고 다시 한 장을 새로 쓰도록 요구하였다. 공술서를 고치라는 요구에 불만을 표시하는 최부에게, 과총관의 부하 薛旻은 몰래 글을 써 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지금 황제께서 새로 즉위해서 法守이 嚴肅하니 만약 당신이 전일에 진술한 공술서를

37) 『漂海錄』卷1, 閏正月 19日.

38) 『籌海圖編』卷5, 「浙江兵防官考」, 沿海關臺寨烽城.

보신다면, 황제께서는 '도적이 횡행하고 있구나' 하고 틀림없이 여기시고, 邊將에게 죄를 돌릴 터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계획으로는 마땅히 본국에 살아 돌아갈 것만을 염두에 두어야지, 일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sup>39)</sup>

최부가 도저소를 떠나 寧波를 거쳐 紹興에 도착하여 제2단계 조사를 받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다. 總督備倭都指揮僉事 黃宗, 巡視海島副使 吳文元, 布政司分守右參議 陳潭의 합동 심문에 최부가 사실대로 남김없이 진술하자, 세 使相은 어찌하여 진술서가 전과 다른지를 물은 다음, 앞서 도저소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똑 같이 베껴 쓰도록 요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일 杭州에 도착하여 鎮守太監·綉衣·三司의 大人이 심문하거나, 북경에 이르러 兵部와 禮部에서 심문이 있을 때도 반드시 같은 내용을 진술해야만 한다고 요구하였다.

臣의 성명, 살던 고향, 역임한 관직, 표류하게 된 까닭, 상륙하여 약탈한 일이 없었는지의 정상, 가지고 온 무기의 유무 등을 물었습니다. 신은 파총관에게 답하던 말로 답하고 난 뒤 下山에서 해적을 만나고, 仙巖에서 몽둥이를 맞았던 일을 더 보태고, 가져온 행장에 말안장 1벌을 또 첨가하였습니다. 세 使相은 곧 파총관이 보고한 문서를 내어 신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어찌서 공술서의 앞뒤의 상세함과 간략함이 같지 않소?"라고 하였습니다. "파총관이 처음 심문할 적에 표류하여 정박하게 된 사정만을 답했을 뿐이었고, 오늘 布政三司가 다시 심문하시니 해적을 만났던 일 등을 상세히 거론했던 것입니다." 세 사상은 신에게 천천히 말하기를, "공술서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면 당신에게 실로 죄가 되오. 당신은 마땅히 앞서 쓴 말을 베껴 쓰되 한 글자도 加減이 없어야 하오"라고 운운하였습니다. 신은 곧 베껴 썼습니다. 세 사상은 또 신에게 말하기를, "다음날 당신이 杭州에 도착하면 鎮守太監, 綉衣, 三司大人께서, 북경에 도착하면 兵部와 禮部에서 당신 사정을 다시 물을 것이니 그 때에도 또한 이대로 답해야 하오. 조금이라도 서로 어긋나면 절대로 안 되오"라고 하였습니다.<sup>40)</sup>

결국 이들 관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파총관 유태이 올린 보고와 최부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었다. 앞으로 항주에 가거나 북경에 가더라도 동일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는 모습을 통해, 이들은 무엇보다 최근 기강을 세우기 시작한 새

39) 『漂海錄』 卷1, 閏正月 22日.

40) 『漂海錄』 卷1, 2月 4日.

황제의 문책에서 벗어나고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소흥을 떠난 최부 일행이 항주에 도착하여 7일을 머무르게 된다. 최부 일행이 머문 武林驛의 사무를 맡아 보는 顧壁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최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며, 이것저것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면서도 아래와 같이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國法이 매우 엄하고 律條가 매우 무거우니, 이방인에게 사정을 누설하면 새 法司에는 軍戶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어서는 안 되고 오직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sup>41)</sup>

기강 확립을 위한 明孝宗의 시책이 驛務를 담당하는 末職에게도 침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5. 송환과정에서 崔溥가 들은 ‘新政’情報

최부 일행은 楊旺·傅榮·陳萱 등 호송인들과 3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항주를 떠나 북경으로 향했다. 호송책임자인 指揮 楊旺이란 사람은 문맹이었으므로, 최부는 자연히 부책임자격인 千戶 傅榮이란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필담으로 나누게 되었다. 시일이 오래 걸리는 旅程에서 두 사람은 어느덧 양국의 정치·제도·문화에 대해 기탄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최부 일행이 山東省 泰山이 바라 보이는 魯橋關에 이르렀을 때, 마침 북경으로 돌아가던 劉氏 성을 가진 太監이 탄환으로 뱃사람을 향해 함부로 쏘아대는 광포한 행동을 목격하고, 부영과 진훤은 최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진훤이 말하기를, “저 배의 內官이 이같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41) 『漂海錄』 卷2, 2月 8日.



부영은 신에게 묻기를, “귀국에도 이런 太監이 있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內官들은 궁중에서 청소하는 일과 왕명을 전달하는 일만 말고 官府의 일은 말지 않습니다.” 부영이 말하기를, “太上皇帝께서 宦官을 신임했던 까닭에 이 같은 宦刑을 받은 사람들이 막중한 권력을 쥐고 近侍가 되어 文·武官들이 모두 이에 빌붙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진훤이 말하기를, “醫術과 道教와 佛教의 세 가지 가운데 귀국에서는 어떤 것을 중하게 여깁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儒術을 중히 여기고 醫方은 그 다음이며 佛教는 있지만 좋아하지 않으며 道法은 없습니다.” “成化皇帝께서는 도교와 불교의 두 가지 법을 가장 중하게 여겼는데, 지금 新皇帝께서 일절 이를 금지시켰습니다.”<sup>42)</sup>

우선 이 대화 속에는 조선에는 명과 동일한 宦官制度가 존재하지만, 그 운용이 크게 다르다는 점과 明憲宗은 道教와 佛教를 尊崇하였지만 지금의 새 황제는 이를 억제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목된다.

일행이 滄州를 지날 무렵 최부는 그동안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일을 부영에게 질문하며 아래와 같은 문답이 이루어졌다.

부영에게 묻기를, “淮河를 지난 뒤부터 兵部·刑部·吏部 각 官司 관원의 배가 계속 이어지고 끊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천자께서 영명하시어, 朝臣의 예전 일 가운데서 혹시 작은 과오가 있었던 사람도 모두 降職하거나 貶黜시키고 있습니다. 강 위에서 錫牌를 차고 돌아가는 사람은 모두 폄직되어 고향으로 내려가는 朝臣들입니다. 전일에 紹興府에서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던 總兵官 黃宗도 貶職되어 돌아갔습니다.” “朝臣들 중에는 폄직된 사람이 많은데 어찌하여 환관의 무리들을 물리치지 않아 마음껏 행세하게 합니까?” “환관들 중에도 죽임을 당하고 降職되고 貶黜된 사람 또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運河로 경사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先帝께서 과견하셨던 자들이지만 돌아가면 또한 보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전일에 만났던 태감 羅公과 聶公도 모두 늦게 돌아갔다는 이유로 奉御의 직으로 폄직되었습니다.” “지금 천자가 다시 堯舜 같은 군주를 만나서 元凱 같은 이가 등용되고 四凶 같은 이가 폄출되어 조정 맑아지고 四海는 편안해졌으니 또한 경하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고말고요, 우리 황제께서 멀리하시는 자는 소인과 환관입니다. 날마다 經筵에 나아가 꾸준히 閣老學士들과 詩書를 강론하고 정사를 의논해 마지않으십니다. 지난 3월 9일에는 몸소 國子監에 행차하여 先聖에게 釋奠禮를 거행하셨으니 유교를 숭상하고 道學을 존중하는 뜻이 또한 지극합니다.”<sup>43)</sup>

42) 『滄海錄』 卷2, 3月 8日.

최부와 부영이 나는 이 대화 속에는 최근에 貶職된 朝臣들이 아주 많으며, 그 중에는 紹興에서 최부를 심문하였던 總督備倭都指揮僉事 黃宗도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 무렵은 최부가 黃宗으로부터 심문을 받고 2월 5일에 紹興을 떠난 지 46일 쯤 되던 날이고, 또한 황종의 보고를 토대로 작성된 공문을 현재 호송책임자 양왕이 휴대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 짧은 기간에 황종이 이미 편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정보가 大運河로 북경을 향해 北上 중인 부영에게까지 알려진 것이 놀랍게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최부는 지난 2월 18일 그 때 마침 북경을 향해 가던 도중이던 姓이 羅氏인 어느 太監을 蘇州 滄墅鎮 앞 鈔關에서 만나, 후한 대접을 받았던 일이 있었다.<sup>44)</sup> 그런데 바로 그 羅太監도 북경에 늦게 도착했다는 것 때문에 최근 貶職을 당했다는 것이다. 불과 33일 전에 蘇州에서 만났던 羅太監이 북경에 도착한 후 貶職까지 당하였다는 정보가 다시 대운하를 타고 되돌아 온 것이다.

그리고 明孝宗은 宦官과 小人을 멀리하며 몸소 經筵에 납시어 꾸준히 內閣大學士들과 政事를 논의하고 있다는 ‘新政’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 황제가 經筵에 참석한다는 극히 상식적일 것 같은 이 記事도 사실 내력이 있다. 즉 명효종은 바로 이 해의 3월에 비로소 첫 經筵을 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sup>45)</sup> 뿐만 아니라 명효종이 3월 9일에 몸소 國子監에 행차하여 孔子에게 釋奠禮를 거행하였다는 정보가 들어 있는데, 최부가 기록한 이 내용은 『明實錄』의 다음과 같은 기사와 정확하게 相應하고 있다.

황제는 國子監을 시찰하고 釋奠禮를 행하였다. 彝倫堂에 자리 잡고 講官으로부터 經傳의 수업을 받았다. 祭酒와 司業에게 坐講을 하도록 하였다.<sup>46)</sup>

명효종의 國子監 행차는 그동안 佛敎와 道敎를 尊崇해 왔던 明憲宗의 시대와 완전히 절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앞으로 儒敎를 더

43) 『漂海錄』 卷2, 3月 21日.

44) 成化年間에 蘇杭督織太監을 역임한 羅政이 틀림없을 것이다. 『蘇州織造局志』 卷1, 沿革, 江蘇人民出版社, 1959.

45) 『明孝宗實錄』 卷11, 弘治 元年 3月 丙子.

46) 『明孝宗實錄』 卷11, 弘治 元年 3月 癸酉.

욱 尊崇하겠다는 의사를 내외에 천명한 儀式이었다. 같은 날 밤에 부영은 최부의 배로 건너 와서 최부와 또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밤에 부영이 또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방금 북경에서 온 사람이 하는 말이 ‘어느 尙書와 어느 學士가 마주서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데, 校尉가 천자에게 알리니 천자께서 錦衣衛에 내리어 무슨 말을 했는지 심문하도록 명하셨다’고 합니다. 학사는 몸이 內閣에 있으며 至尊께서 크고 작은 일을 모두 그와 더불어 의논하시는데, 지금 尙書와 서로 마주 서서 말 하니, 무슨 사사로운 청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여 이를 심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sup>47)</sup>

內閣學士와 尙書가 궐내에서 사사로운 청탁을 하는 듯한 장면을 목격한 校尉가 이 사실을 황제에게 密告하였다는 이 逸話는 이 시기 중국 조정의 분위기를 가장 잘 드러내어 주는 사례를 최부가 적절하게 기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명효종은 관리들이 서로 사사로운 청탁을 주고받는 것을 엄금한다는 지시를 약한 달 전에 내렸다는 기사가 『明實錄』에 다음과 같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정의 政事에는 모두 成憲이 있으니 지금부터 五府·六部·都察院·通政司·大理寺 등 衙門에서는 힘써 준수하도록 하고, 서로 청탁을 하여 공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內官과 外官이 서로 통하면서 감히 메모를 써서 청탁하는 자는 內官의 경우 東廠의 楊鵬에게 넘기고, 外官의 경우 錦衣衛 朱驥에게 송치하여 上奏해서 처리하도록 하라. 만약 눈감아주고 上奏하지 않은 자는 사실이 드러나면 함께 重罪로 다스리도록 하라.<sup>48)</sup>

이 사건을 통해서도 관리의 기강을 확립시키려는 明孝宗의 엄격한 자세를 엿볼 수 있다. 한편 관료사회도 이 때문에 무척 긴장하고 경직되어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일행이 天津衛를 지날 무렵에 부영은 최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浙江 三司에서 아뢰는 당신들 표류한 일은 원래 표주의 기한이 4월 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表奏를 받들고 가는데 시한에 미치지 못할 듯 하여 이 역에서 驛馬를 타고 먼저 京師로 가겠습니다. 훗날에 兵部 앞에서 만날 때 揖禮를 하여 서로 아는 내색

47) 『漂海錄』 卷2, 3月 21日.

48) 『明孝宗實錄』 卷11, 弘治 元年 2月 丙辰.

을 해서는 안 되니, 이는 새 천자의 法度가 嚴肅하기 때문입니다. 49)

부영이 공문을 시한에 맞춰 제출하기 위해 서둘러 육로로 京師에 도착했지만, 浙江 三司가 兵部에만 直報를 하고 禮部에는 보고하지 않았던 까닭에, 禮部가 그들을 벌주도록 상주하였다. 그리고 兵部는 또한 指揮 楊旺에게 곤장 20대를 쳤다. 50)

북경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친 최부 일행이 山海關을 지나 廣寧에 이르렀을 때, 마침 明孝宗의 聖節을 하례하기 위해 북경을 향해 가던 使臣 蔡壽 일행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채수가 후일 북경에 도착한 후, 51) 일행 중 李郁 등이 弓角을 매입했다가 압수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聖節使 蔡壽가 먼저 通事를 보내 성종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事件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臣 등이 北京에 있을 때 通事 李郁과 庾思達이 弓角을 사가지고 왔는데, 중국 사람이 이를 보고 校尉에게 알렸습니다. 序班 謝紳이 羅將을 시켜 곤장 李郁 등의 방으로 들어가 弓角 50대를 찾아내서 가져갔습니다. 즉시 궁각의 주인을 체포하여 錦衣衛에 가두었고, 아울러 館夫와 守衛 등도 추궁하였으며 황제에게 상주되었습니다. 52)

이 사건 역시 校尉에게 고발되어 사건이 확대된 경우인데, 보고를 받은 明孝宗은 “朝鮮은 禮義의 나라이라 한 집안과 마찬가지로 피차간의 細人들이 몰래 서로 팔고 사는 것까지 宰相들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또 조선인에게는 1년에 한 차례씩 弓角 交易을 허용한 例가 있으니 아울러 용서하고 다스리지 말라. 조선의 宰相을 불러 이를 말해 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관대하게 처리하게 하였다.

최부 일행이 귀국 도중인 遼東都同가 위치한 遼陽에 이르렀을 때, 조선어를 잘 구사하는 戒勉이라는 중이 찾아 와서, 최부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49) 『漂海錄』 卷2. 3月 25日.

50) 『漂海錄』 卷3. 4月 1日.

51) 『明孝宗實錄』 卷15. 弘治 元年 6月 壬寅.

52) 『朝鮮成宗實錄』 19年 8月 丁未.

우리말에 능통한 戒勉이란 중이 臣에게 말하기를, “小僧은 본디 조선 사람인데, 小僧의 祖父가 이곳으로 도망 온지 지금 벌써 3대가 되었습니다. 이 지방은 本國의 경계와 가까운 까닭에 왕래하는 본국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중국 사람은 겁이 많고 용맹스럽지 못하여 도적을 만나면 모두 창을 던지고 도망해 숨어버리며, 또 활을 잘 쏘는 사람도 없어 반드시 본국인으로서 귀화한 사람을 뽑아서 精兵이라 하여 先鋒으로 삼으니, 우리 본국의 한 사람이 중국사람 열 명, 백 명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은 곧 옛날 우리 고구려의 도움인데 중국에게 빼앗긴지 천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고구려의 옛 풍속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아서 高麗祠를 세워 근본으로 삼고, 공경하게 제사지내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니 근본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듣건대, ‘새는 날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여우는 죽을 때 살던 굴로 머리를 돌린다’고 하였으니, 우리들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습니다. 다만 본국에서 도리어 우리들을 중국 사람으로 간주하여 중국으로 돌려보내면, 우리들은 반드시 외국으로 도망한 죄를 받아서 목을 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가고 싶지만 발이 머뭇거릴 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그대는 淸淨의 무리이므로 깊은 산 속에 있어야 할 것인데 어찌서 중의 冠을 쓰고 俗人의 행동을 하면서 閭閻에 드나들고 있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소승은 산 속에 들어간 지 오래됐는데 지금 관리에게 불러온 것입니다.” “무슨 일로 부르던가?” “大行皇帝께서 佛法을 존승하시어 큰 사찰이 천하에 반을 차지하고, 方袍가 編戶보다 많았으며, 중들은 편안히 누워있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수행하였습니다. 새 황제께서는 東宮으로 있을 때부터 중들을 미워하시더니 帝位에 오르시고는 아주 제거해 버릴 뜻을 가지셨습니다. 지금은 천하에 詔勅을 내려 새로 건설한 庵자는 모두 철거하도록 하고 度牒이 없는 중은 모조리 환속시키라는 명령이 星火 보다 급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三堂 대감께서 관리로 하여금 저를 불러서 오늘부터는 절을 부수고 머리를 기르도록 하라 운운하셨으니 저희 중들은 어디에 이 한 몸 받아들일 곳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 사찰을 철거하여 민가로 만들고, 靑銅 佛像을 부수어 구리 그릇으로 만들며, 깎은 머리를 기르게 하여 軍籍에 충당시키시려는 의도이니, 이제야 大聖人의 하는 일이 매우 비범함을 알겠다. 너희들은 일찍이 ‘황제폐하 만만세’라 축원하였다. 너희들의 축원이 이와 같았고 大行皇帝의 불교를 숭상하심이 이와 같았으며 사찰과 중들의 번성이 또 이와 같았으나, 대행황제는 長壽하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으니 너희들이 축원한 수고로움은 어디 있는가?”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면은 하직하고 물러갔습니다.<sup>53)</sup>

戒勉이 최부를 찾아 온 목적은 明孝宗의 佛教 彈壓에 견디지 못해, 최부를 따라 조선으로 갈 길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明孝宗이 내린 佛教 彈壓政策 가운데는 “새로 건설한 암자는 모두 철거하고 度牒이 없는 중은 모조

53) 『漂海錄』 卷3 5月 24日.

리 환속시키라”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침도 같은 해 윤정월에 左都御使 馬文升이 명효종에게 제시한 15事 가운데 다음 1條와 相應하고 있다.

禮部에 勅旨를 내려 天下 및 兩京의 寺觀과 僧徒의 額數를 조사하여 다시 정원 외 度牒을 발급하지 않아야 하고, 사사료이 지은 寺觀은 즉시 허물도록 해야 합니다. 行童이나 道童으로 나이가 15세 이상인데도 度牒이 없는 자는 비록 古刹에 있다 하더라도 還俗을 명해야 합니다. 눈감아준 자나 僧·道·官 및 住持는 모두 充軍을 시켜야 하며, 해당 관청에서 적발하지 못하면 법을 어긴 것으로 다스려야 합니다.<sup>54)</sup>

명효종은 馬文升의 이 건의를 받아들여 佛道抑壓政策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던 것이다.

한편 성절사 채수는 8월 24일 북경으로부터 漢陽으로 돌아 와 聞見 事件을 보고하기 전에, 성종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문답이 이루어졌다.

聖節使 蔡壽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宣政殿에 나아가 접견하고 이내 묻기를, “새 天子는 어떠하시던가?” 하니,

채수가 아뢰기를, “황제의 法令이 嚴明하여 중국의 조정 사람들이 모두 聖明하다고 칭송하였습니다. 前代의 늙은 宦官들은 모조리 先皇의 陵 곁으로 옮겨 가게 하고, 조정의 모든 사무는 모두 어진 사대부에게 맡겼습니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듣건대, 황제가 관직을 가진 중이나 道士들을 모조리 파직시켜 버리려고 하였던데, 太皇后的 傳教로 정지되었다 하니, 그러하던가?” 하니,

채수가 말하기를, “臣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董越과 王敞이 중국 조정으로 돌아와 殿下께서 賢主이심을 크게 칭송하였사오며, 또 詐踪을 어진 재상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의 容儀는 어떠하던가?” 하니, 채수가 말하기를, “용의는 매우 단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소매 속에서 聞見事件을 꺼내 바쳤다.<sup>55)</sup>

성절사 채수와 성종이 나눈 이 대화에서도 영락없이 明孝宗의 ‘法令嚴明’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明孝宗이 ‘法令嚴明’하다는 사실은 성절사 한찬에 의

54) 『明孝宗實錄』 卷10, 弘治 元年 閏正月 己巳.

55) 『朝鮮成宗實錄』 19年 8月 乙卯.

해 조선에 처음 알려진 이후 성절사 채수의 이 보고에 이르기까지 거의 1년 간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6. 맺음말

明代中期 明孝宗의 시기는 明代政治史에서 흔히 '弘治中興' 또는 '弘治新政' 으로 표현된다. '弘治中興'은 오랜 積弊를 제거하기 위해 명효종이 벌인 개혁정치, 즉 '弘治新政'의 결과이다. 명효종의 여러 개혁 조치는 북경을 왕래하는 조선사신을 통해 즉각 조선에 알려졌다. 조선성종은 이와 같은 명효종의 개혁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북경에 다녀 온 사신들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탐문하는 데 매우 열심이었다. 이와 같은 '新政'의 전개 과정은 주로 관료의 인사이동을 중심으로 『明實錄』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단순 사실만을 무미건조하게 적시해 놓은 『明實錄』의 기록과는 달리, 『朝鮮王朝實錄』에는 이웃나라에서 보는 '弘治新政'의 전개 양상이 明朝의 정치적 분위기와 함께 보다 객관적으로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다.

한편 성종의 명을 받고 敬差官으로 제주에 출장 간 崔溥가 父親喪의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오던 중, 폭풍우로 말미암아 배가 표류하여 浙江省 臺州府 臨海縣에 표착한 것이 바로 홍치 원년(성종 19년, 1488) 윤정월의 일이다. 최부가 漂流民으로 중국에 머문 홍치 원년의 136일 간은 바로 '弘治中興'의 초기에 해당한다. 중국 땅에 머문 136일 간 '新政'이 전개되던 초기 홍치 원년의 정치적·사회적 분위기를 최부는 『표해록』속에서 생동감 있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최근 紀綱을 확립하려는 황제의 문책을 두려워하는 官人, 紹興에서 최부를 심문했던 總兵官 黃宗과 蘇州에서 만났던 太監 羅政이 각각 貶職 당했다는 정보, 새로 건설한 庵子를 모두 철거하고 度牒이 없는 중을 모두 還俗시키라는 佛教抑壓의 실제 양상 등이 묘사되어 있다.

사실 명효종이 즉위 초기에 專橫하던 일부 宦官 勢力과 萬氏 親族을 숙청한

다음, 佛僧과 道士로서 官職에 나아 간 자들을 도태시키고 銓注를 통한 공정한 人事를 시행하며 法수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상황을 당시 朝鮮朝廷은 불과 수 개월의 時差를 두고 거의 빠짐없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날씨가 아무리 나빠도 朝會를 거르지 않으며, 經筵을 빠트리지 않고, 宴會에서 음악을 사용하지 않으며, 珍寶를 탐하지 않고 節儉을 숭상한다는 명효종의 개성까지 대부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매서운 기세로 紀綱을 세우며 개혁을 추진하던 명효종은 초기의 열정이 식어가면서 어느 듯 개혁에도 失速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의 始點이 『明孝宗實錄』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으나, 홍치 5년과 7년에 북경에 파견된 조선사신에 의해 세밀히 관찰되어 오히려 『朝鮮成宗實錄』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明孝宗實錄』

『朝鮮成宗實錄』

『籌海圖編』

『漂海錄』

『皇明通紀述遺』

『蘇州織造局志』, 沿革: 江蘇人民出版社, 1959.

嘉 靖, 『浙江通志』

傅衣凌 主編, 楊國楨 陳支平 著, 『明史新編』, 人民出版社, 1993.

郭厚安, 『弘治皇帝大傳』, 遼寧教育出版社, 1994.

李夢芝, 「論弘治帝的歷史地位」, 『史學月刊』 1997-2.

張宏斌, 「論弘治時的皇權與內官干政」, 『渭南師專學報』 第3期, 社會科學版, 1999年.

#### <中文提要>

明代政治史上, 將明代中期明孝宗時期一般稱爲'弘治中興'或'弘治新政'.'弘治中興'是爲了



清除以久的積弊而展開的改革，即弘治新政的結果。明孝宗的許多改革政治通過往返于北京和朝鮮的使節及時地傳到了朝鮮。朝鮮成宗對關於明孝宗的改革政治非常感興趣，熱衷于通過從北京訪問回來的使臣探聽消息。這些關於新政的發展過程，是以官人的人事移動為中心在『明實錄』中也有記載。但跟將事實單純、及時地載入『明實錄』不同，『朝鮮王朝實錄』裏，是以作為鄰國的角度，較客觀地把弘治新政的發展情況與明朝政治氛圍相結合，生動地記載了當時的情況。

同時，奉成宗旨意得到濟洲出差的敬差官崔溥，傳聞父親去世的消息，在坐船回陸地的途中，遭遇暴風，漂流到浙江省臺州府臨海縣，這時正為弘治元年(朝鮮成宗19年，1488)閏正月。崔溥作為漂流民在弘治元年間停留在中國的136天時間，正為弘治中興的初期。在崔溥停留在中國的時間裏，在『漂海錄』中生動地記載着當時新政開展弘治元年的政治、社會氛圍。例如，當時有的官人要制定紀綱時怕遭到皇上追究責任的事，當時在紹興審問過崔溥的總兵官黃宗和崔溥在蘇州見過的大監羅政双双被貶職的情形，把新建的庵子撤掉和讓沒有度牒的和尚還俗的佛教壓迫的情況等描述。

事實上，當時的朝鮮朝廷是經過數月的時差，無遺漏地了解到在明孝宗即位初期，把一些專橫的宦官勢力和萬氏族親清除之後，淘汰了作為佛僧和道士出任官職的人，根據銓注實行公正的人事政策，嚴格執行法令等情況。甚至更細致地了解到即使天氣再不好也要舉行早朝，從不漏掉經筵，在宴會中從不使用音樂，明孝宗從不垂涎于珍食的節儉個性等。但以猛烈的形勢推行的新政，因明孝宗的熱情減退，改革放慢了速度。這些變化從開始便通過到北京的使節細致的觀察，在『朝鮮成宗實錄』的弘治5年和7年記事裏有所記載，但反而同時期的『明孝宗實錄』並沒有體現出來。

關鍵詞：弘治中興，弘治新政，明孝宗，朝鮮成宗，崔溥，漂海錄